

10대 그룹 미성년 주식 239억원... 승진도 초고속

'144억원' '6500만원'. 전자는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 장녀 허정현양(17)이 보유한 총 주식 평가액이다. 후자는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지난 2016년 대기업 직장인 평균 연봉이다. 금액 차이가 약 221배에 달한다.

금수저가 보유한 자산만큼 으르면 일반 직장인이 꼬박 221년을 일해야 하는 셈이다.

재계 금수저들은 보유주식 가치도 높지만 승진도 초고속이다. 10대 그룹의 오너 일가가 입사 후 임원이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8년. 일반 회사원보다 20년 가까이 빨랐다.

글로벌이코노믹이 10대 그룹을 분석한 결과, 오너 일가 중 그룹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총 4명. 이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녀는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의 장녀 허정현 양(17)이다.

허씨는 GS건설의 주식 8만2941주와 GS그룹 주식 19만5916주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주식 평가액은 GS건설이 23억3064만원(2017년 12월 15일 종가기준), GS그룹이 120억8801만원에 달한다. 이어서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의 장남 허선홍 군(18)이 GS그룹의 주식 15만3836주를 갖고 있다. 주식평가액은 94억9168만원에 이른다.

롯데그룹의 외적인 최성원 군(14)은 미성년자 중 세 번째로 보유 주식 수 많다. 최성원 군은 롯데지주 주식 367주를 보유해 주식평가액이 2282만원에 달한다.

17세 보유주식 가치가 144억원

대기업 직장인 연봉의 '221배'

오너들 임원까지 평균 4.8년

일반 회사원 평균 24년 걸려

10대 그룹 30대 미만 자제 보유 주식 현황

이름	보유 주식	*주식평가액
김동선(28세)	125만주(한화)	519억3750만원
허원홍(26세)	51만7670주(GS)	319억4023만원
구연제(27세)	45만386주(LG)	403억5458만원
구연수(21세)	26만5064주(LG)	237억4973만원
허정현(17세)	8만2941주(GS건설)	23억3064만원
	19만5916주(GS)	120억8801만원
허성윤(24세)	18만3704주(GS)	113억3453만원
허선홍(18세)	15만3836주(GS)	94억9168만원
구현모(21세)	11만654주(LG)	99억1459만원
최영민(25세)	3만5379주(GS)	21억8288만원
김주영(25세)	2300주(LG)	2억608만원
최성원(14세)	367주(롯데지주)	2282만원
최성현(11세)	262주(롯데지주)	1629만원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식평가액은 2017년 12월 15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
*보유 주식은 가장 최신 현황인 GS 롯데지주는 2017년 12월, GS건설 2017년 9월, LG 2017년 10월을 기준.

가장 나이가 어린 롯데그룹의 외척 최성현 군(11) 역시 롯데지주 주식을 262주 보유하고 있다. 주식평가액은 1629만원이다.

결과적으로 미성년자 네 사람이 가진 주식의 가치는 총 239억4944만원에 달한다. 이는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대기업 정규직 평균 연봉 6521만원의 367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범위를 30세 미만으로 넓히면 오너 일가족 중 그룹 주식을 보유한 자녀는 미성년자 4명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늘어난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녀는 한화그룹의 3남 김동선 씨(28)다. 김동선 씨는 한화그룹의 주식 125만

주를 가지고 있으며 주식평가액은 519억3750만원이다.

김동선 씨에 이어 주식을 많이 보유한 자녀는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의 장남 허원홍 씨(26)다. 허원홍 씨는 GS그룹의 주식 51만767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액은 319억4023만원이다.

3·4등은 구분준 LG그룹 부회장의 자녀 구연제 씨(27)와 구분부 LG그룹 회장의 자녀 구연수 씨(21)가 나란히 차지했다.

구연제 씨는 LG의 주식 45만386주를 보유, 주식평가액은 403억5458만원이다. 구연수 씨

는 LG의 주식 26만5064주를 보유하며 보유 주식의 가치는 237억4973만원에 달한다.

허연수 대표이사 장녀 허성윤 씨(24)는 GS그룹의 주식 18만3704주를 가지고 있으며 주식평가액은 113억3453만원이다.

구분부 LG그룹 회장의 육촌 구현모 씨(21) GS그룹의 최영민 씨(25), 구 회장의 조카 김주영 씨(25)는 하위권이다.

구현모 씨는 LG의 주식을 11만654주를 보유, 주식평가액이 99억1459만원이며 최영민 씨는 GS그룹의 주식 3만5379주, 김주영 씨는 LG그룹의 주식 2300주를 갖고 있다.

한편 평범한 직장인과 재계 '금수저'들의 차이는 승진 속도에서도 차이가 난다. 10대 그룹 주요 계열사를 이끄는 오너들이 임원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4.8년. 일반 회사원들이 임원이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24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려 20년 가까이 빠르다.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은 1972년생

으로 오너일가 가운데 최연소인 24세에 조선호텔 마케팅 상무보로 입사, 입사 동시에 임원직에 올랐다.

정유경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27세에 신세계 전략기획실 이사로 입사해 임원이 됐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마찬가지다.

입사 후 3년 안에 별을 단 사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2년),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2년),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5년),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2년) 등이다.

반대로 입사 후 임원까지 5년 이상이 걸린 사람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장남 정인선 부회장(5년)과 정몽준 현대중공업 대주주의 장남인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5년) 등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9년)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9년), 허명수 GS건설 부회장(15년) 등은 비교적 긴 편에 속한다.

오소영 기자 osy@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 금융그룹

1

KB증권의 1주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KB증권을 찾아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신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성장할 수 있었던 1년,
언제나 당신께 힘이 되는 든든한
투자 파트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의 평생 투자 파트너

KB 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7-06503호(2017년12월21일)

KB 증권



수익 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를 가진 이른바 '금수저'들은 비단 이들뿐만이 아니라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의 한 동, 한 라인을 분석한 결과 총 12가구 중 두 가구는 부모와 자식이 지분을 같이 보유하거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억원대 아파트 주인은 대학생?

6집 건너 1집 부모 등 증여 받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도보로 5분 거리이며 인근에 명품 백화점과 푸드마켓 등이 즐비하다. 집에서 한강이 훤히 내다보이는 이 아파트의 매매가는 최소 12억원에 달한다. 면적이 20평(69㎡)임을 고려한다면 평당 가격은 60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 아파트의 주인은 아들 A씨(24세)와 아버지 B씨(58세)다. 두 사람은 작년 3월 이 아파트를 매매했다. A씨는 지분 20%, B씨는 지분 80%를 가지고 있다.

수익 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를 가진 이른바 '금수저'들은 비단 이들뿐만이 아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이 아파트의 한 동, 한 라인을 분석한 결과 총 12가구 중 두 가구는 부모와 자식이 지분을 같이 보유하거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공고한 금수저의 벽

7년째 전체 자산 40% 차지

상위 10%가 자산 40%를 차지한다. 하위 10%의 자산은 미미하다. 이 같은 격차는 지난 2010년부터 관련 통계가 매년 집계한 이래 변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고한 자산 양극화가 사회 불평을 불러오고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1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순자산 10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42.1%다. 이는 2016년과 같은 수치다. 이 통계는 2010년부터 매년 집계되고 있

다. 통계 집계 이래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은 4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순자산 10분위의 점유율은 △2010년 47.3% △2011년 46.1% △2012년 46.2% △2013년 45.0% △2014년 43.3% △2015년 43.2%였다. 상위 10%의 점유율은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전체 순자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대로 하위 10%는 7년째 자산잠식 상태다. 1분위의 순자산 점유율은 2016년 -0.3%에서 2017년 -0.2%로 큰 변화가 없다.

순자산 1분위의 점유율은 △2010년 -0.9% △2011년 -0.8% △2012년 -0.4% △2013년 -0.4% △2014년 -0.2% △2015년 -0.3%였다.